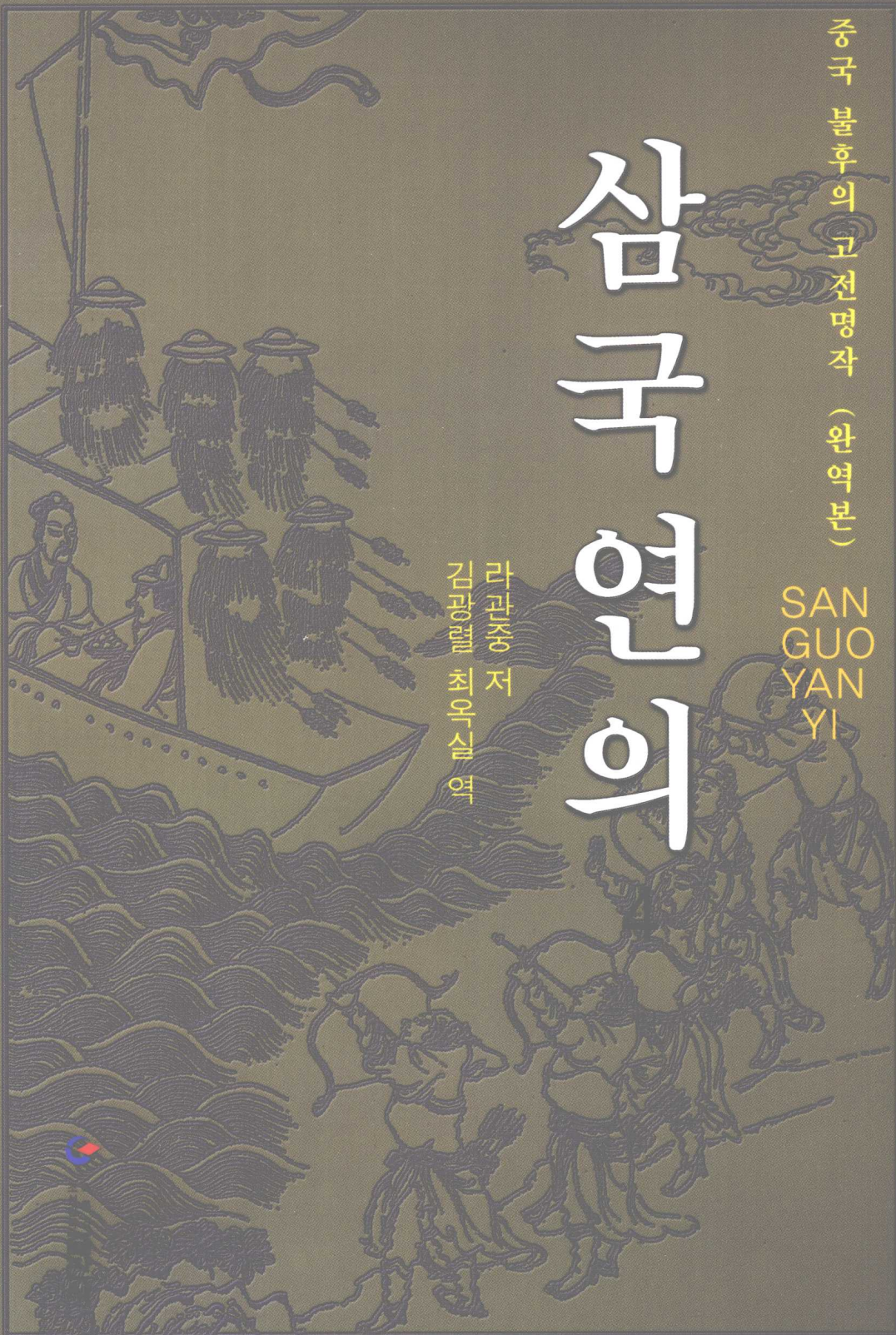


중국 불후의 고전명작 (완역본)

SAN
GUO
YAN
YI

삼국연의

라관중 저
김관렬 최옥실 역



중국 불후의 고전명작 (완역본)

삼국연의

4

라관중 저
김광렬 최옥실 역

북문출판사



图书在版编目(CIP)数据

三国演义. 4: 朝鲜文 / (明) 罗贯中著; 金光烈, 崔玉实译. —哈尔滨: 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 2009. 4
ISBN 978-7-5389-1568-6

I. 三… II. ①罗…②金…③崔… III. 章回小说—中国—明代—朝鲜语(中国少数民族语言) IV. I242.4

中国版本图书馆 CIP 数据核字(2009)第 049207 号

本书根据人民文学出版社 1973 年 12 月
第 3 版翻译出版

차 례

- 제 91 회 제갈승상은 로수에 제를 지내 군사를 돌리고
중원을 치려 무후는 상주문을 올리다 /1
- 제 92 회 조자룡은 분발하여 다섯 장수를 베고
제갈량은 피를 써서 세 성을 빼앗다 /16
- 제 93 회 강백약은 공명에게 항복을 드리고
무향후는 왕랑을 꾸짖어 죽이다 /31
- 제 94 회 제갈량은 눈을 리용해서 강병을 깨뜨리고
사마의는 날을 한해서 맹달을 사로잡다 /46
- 제 95 회 마속은 간하는 말을 듣지 않다가 가정성을 잃고
무후는 거문고를 타서 중달을 물리치다 /61
- 제 96 회 공명은 눈물을 뿌려 마속을 베고
주방은 머리를 잘라 조휴를 속이다 /79
- 제 97 회 무후는 위국을 치려 다시 상주문을 올리고
강유는 조병을 깨뜨리려 거짓 항서를 드리다 /93
- 제 98 회 한군을 쫓다가 왕쌍은 죽고
무후는 진창성을 기습하여 이기다 /107
- 제 99 회 제갈량은 위병을 크게 깨뜨리고
사마의는 서촉을 범해 들어오다 /122
- 제100회 촉병은 병영을 빼앗아 조진을 깨뜨리고
무후는 진법을 다투어 중달을 옥보이다 /140
- 제101회 공명은 룡상으로 나가 귀신놀음을 하고
장합은 검각으로 달려가다가 계책에 떨어지다 /155
- 제102회 사마의는 복원 위교를 점거하고
제갈량은 목우 류마를 만들다 /171

- 제103회** 사마의는 상방곡에서 죽을번하고
제갈량은 오장원에서 별에 명을 빌다 /190
- 제104회** 큰 별이 떨어져 한나라 승상은 하늘로 돌아가고
목상을 보고서 위나라 도독은 간담이 스러지다 /207
- 제105회** 제갈량은 미리 비단주머니에 피를 깔아두고
위황제는 승로반을 떼어옴기다 /219
- 제106회** 공손연이 싸우다 패하여 양평에서 죽고
사마의는 거짓 병든체하여 조상을 속이다 /235
- 제107회** 위나라 임금의 정사는 사마씨에게로 돌아가고
강유의 군사는 우두산에서 패하다 /251
- 제108회** 정봉은 눈속에서 단도를 뽑내고
손준은 술자리에서 밀계를 베풀다 /267
- 제109회** 한나라 장수가 기이한 피를 쓰매 사마소는 곡경을
치르고 위나라는 집의 응보로 조방은 폐위를 당하다 /278
- 제110회** 문앙은 단기로 웅병을 물리치고
강유는 배수진을 쳐서 대적을 깨뜨리다 /292
- 제111회** 등사재는 지혜로 강백약을 깨뜨리고
제갈탄은 의리로 사마소를 치다 /305
- 제112회** 우진은 수춘을 구하려다 의리를 지켜서 죽고
강유는 장성을 치매 힘을 다해 적을 무찌르다 /316
- 제113회** 정봉은 계책을 정해서 손림을 베고
강유는 진법을 다투어 등애를 깨뜨리다 /328
- 제114회** 조모는 수레를 몰아 남궐에서 죽고
강유는 량초를 버려 위병을 이기다 /343
- 제115회** 후주는 참소를 믿고 회군하라고 조서를 내리고
강유는 둔전한다 청탁하고 화를 피하다 /355
- 제116회** 종회는 한중길에서 군사를 나누고
공명은 정군산에서 신령되어 나타나다 /368

- 제117회** 등사재는 가만히 음평을 넘고
제갈침은 싸우다가 면죽에서 죽다 /381
- 제118회** 한왕은 소렬묘에 통곡하여 효도에 죽고
두 무사는 서천을 들어가매 공을 다투다 /395
- 제119회** 거짓 투항하매 교묘한 계교가 공담이 되고
두번 수선하매 본보기대로 거짓을 그리다 /408
- 제120회** 두예를 추천하매 로장은 새로운 계책을 드리고
손호를 항복받아 삼분천하가 통일되다 /425

제 91 회

제갈승상은 로수에 제를 지내 군사를 돌리고
중원을 치려 무투는 상주문을 올리다

이때 공명이 회군하여 나라로 돌아가니 맹획은 동주와 추장들이며 여러 부락의 백성들을 거느리고 나서서 그를 둘러싸고 절을 하며 배웅한다. 전군이 로수에 당도하니 때는 추 구월인데 난데없는 검은 구름이 하늘을 가리고 광풍이 갑자기 일어나서 군사들이 강을 건널수가 없다. 위연은 곧 공명에게 보하였다. 공명이 드디어 맹획에게 물으니 맹획이 말한다.

“이 들에 원래 사나운 귀신이 있어서 못된 작회를 하므로 래왕하는자들이 반드시 제를 지낸답니다.”

공명은 다시 묻는다.

“제물은 무엇을 쓰오?”

맹획이 대답한다.

“전에 나라안에서는 귀신이 작회할 때 칠칠 사십구개 사람의 머리와 함께 검은 소와 흰 양을 잡아서 제를 지냈는데 그러면 자연 바람이 잦고 물결이 가라앉으며 겸하여 해마다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공명은 말한다.

“내 이제 일을 이미 평정한터에 어찌 단 한 사람일지라도 망녕되어 죽이겠소?”

그리고 드디어 몸소 로수가로 가보았다. 과연 음산한 바람 크게 일어나고 파도가 사나워서 군사가 모두 놀란다. 공명이 심히 의심해서 곧 토배기를 찾아 물어보니 토배기가 고한다.

삼국연의

“승상께서 한번 지나가신 뒤로 밤마다 강변에서 귀신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나는데 해질무렵부터 날이 밝을녘까지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사옵고, 독기섞인 안개속에 귀신들이 무수히 나타나 작희하므로 감히 건너가는 사람이 없소옵니다.”

듣고나서 공명은 말한다.

“이는 곧 나의 죄로다. 전번에 마대가 천여명을 거느리고 가다가 모두 물속에서 죽었고 남방사람들을 죽여 모두 이곳에다 버린 까닭에 원통하게 죽은 귀신들이 제 한을 풀길이 없어서 이러는것이라, 내 오늘밤에 친히 나와서 제를 지내리로다.”

토배기가 아뢴다.

“반드시 전례대로 마흔아홉개 사람의 머리를 놓고 제를 지내야만 귀신들이 절로 흩어질것이외다.”

그러나 공명은 말한다.

“본래 사람이 죽어서 원귀가 된것인데 어찌 또 생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게 다 생각이 있느니라.”

군사들중에서 푸주일을 맡아보는 사람을 불러 소와 말을 잡아 밀가루와 섞어서 사람의 머리모양을 만들게 하되 속에는 소고기와 양고기를 넣게 하고 이름 지어 “만두(馒头)”라 하였다.

이날 밤에 로수언덕에다가 향탁을 놓고 제물을 차리며 마흔아홉잔 등불을 밝히고 기를 세워 혼을 부르며 “만두” 등을 땅에다 벌려놓았다. 삼경이 되자 공명이 머리에 금관 쓰고 몸에 학창의 입고 친히 제사를 지내는데 동궐(董闕)로 하여금 제문을 읽게 하니 제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維) 대한(大汉) 건흥 삼년 추 구월 일일에 무향후 령익주목 승상 제갈량은 삼가 제물을 배설하고 나라일에 몸을 바친 촉중 장교와 남방사람의 죽은 혼령에 제를 지내며 이르노라. 우리 대한 천자께옵서 위엄은 춘추시대에 이름 떨쳤던 오패(五霸)에 더하시고 명철하시기는 고대 하의 우왕, 은의 탕왕, 주의 무왕을 이으시도다. 저즈께 먼 지방에서 지경을 침노하고 다른 풍속이 군사를 일으켜서 전갈의 꼬리를 휘둘러 요사를 피우고 이리의 마음을 제멋대로 해서 함부로 란을 일으키니 내 왕명을 받들어 멀고 거친 땅에 죄를 물울새, 비휴(貔貅)를 크게 일어켜 개미떼는 모조리 없어지고, 웅장한 군사가 구름같이 모이자 미

친 도적들은 얼음처럼 스러지며 방금 파죽(破竹)소리가 났는가 했는데 문득 잔내비들은 풍비박산이 되고말았도다. 군사와 남정들은 모두가 천하호걸이요, 관료와 장교들은 다들 천하영웅이라, 무예를 익히고 군사에 뽕혀 밝은 임금을 섬기며 약속을 한가지로 하여 함께 일곱번 사로잡는 계책을 펴서 일제히 나라를 받드는 지성을 굳게 하고 임금께 충성하는 뜻을 다하더니 어찌 알았으리요, 그대들이 군사의 기틀을 잃고 적의 간계에 빠질줄이야. 혹은 남을 맞히려던 화살에 잘못 맞아 황천길을 떠나고 혹은 칼과 창에 상해서 저승으로 돌아갔으니 살아서는 웅맹이 있었고 죽어서는 이름을 남기도다. 이제 개신가를 부르며 포로를 데리고 돌아가 조상의 무덤앞에 전승을 아뢰는 제사가 장차 있으려니와, 그대들의 혼령이 오히려 있거든 비는 말을 반드시 들으리니 내 군기를 따르고 내 군사를 쫓아서 함께 본국으로 돌아가 각기 제 고장을 찾아서 가을과 겨울에 골육이 받드는 제사를 맛보며 식구들이 지내 주는 제사를 받고 행어나 타향의 귀신으로 남지 말며 부질없이 이역의 혼이 되지 말지어다.

내 마땅히 천자에게 아뢰고 그대들 집집마다 모조리 나라의 은혜를 입게 하되 해마다 옷과 량식을 주며 달마다 록을 내려 이로써 사례하여 그대들의 마음을 위로하러 하노라.

이곳의 토신과 남방의 혼령에 이르러는 재물이 매양 있고 의지할 곳이 멀지 않으며, 산자는 이미 천자에게 복종하였거니와 죽은자도 또한 천자의 술하로 돌아갔으니 바라건대 편안히 잠들어 다시는 울부짖는 일이 없을지어다. 애오라지 정성을 표하여 경건히 제사를 드리노니, 아, 슬프도다.

복유상향(伏惟尚飡-삼가 제를 올림).

제문을 다 읽고나자 공명이 목을 놓아 통곡하는데 어찌나 애절한지 삼군이 모두 감동해서 눈물을 뿌리지 않는자가 없고 맹획의 무리도 다들 통곡한다. 이때 안개와 구름속에 은은하게 수천명 원혼들이 바람을 따라 사면으로 흩어지는것이 보였다. 이에 공명은 좌우를 시켜 제물들을 모조리 로수가운데다 뿌리게 하였다.

이튿날 공명이 대군을 령솔하고 로수 남쪽 언덕에 이르러 보니 이미 구름은 걷히고 안개는 흩어졌으며 바람은 차고 물결은 잔잔하다. 촉병들이 모조리 편안하게 로수를 건너서 과연 “채찍으로 두드

리니 금등자(金燈子)는 울리고 사람들은 개선가를 부르며 돌아간다는 격”이다. 영창(永昌)땅에 이르러 공명은 왕항과 려개를 머물러두어 네 고을을 지키게 하고 맹획에게 명하여 무리들을 거느리고 본토로 돌아가게 하는데 정사를 부지런히 하며 백성들을 잘 어루만지고 농사때를 놓치지 말게 하라고 당부하였다. 맹획은 울면서 절하여 작별하고 돌아갔다.

공명이 몸소 대군을 령솔하고 성도로 돌아가니 후주가 란가 타고 성밖 삼십리에 나와서 영접하는데 란가에서 내려 길가에 서서 공명을 기다렸다. 공명은 황망히 수레를 내려 길에 엎드려서 아뢴다.

“신이 속히 남방을 평정하지 못하와 폐하로 근심을 끼치시게 하였으니 이는 신의 죄로소이다.”

후주는 공명을 붙들어일으키고 수레를 가지런히 하여 돌아가자 태평연을 배설하고 삼군에 상을 후히 내렸다. 이로부터 먼 나라에서 공물을 가지고 조정으로 오는데가 이백여국이나 되었다. 공명은 후주에게 상주하고 나라 일에 목숨을 바친 사람들의 가솔들에 일일이 두텁게 은혜를 베풀어주었다. 사람들이 모두 좋아한다. 조정이나 민간이나 다 태평하였다.

위나라 임금 조비가 위에 오른지 칠년째 되는 해는 곧 축한의 건흥 사년이다. 조비가 먼저 맞아들인 부인 견(甄)씨는 곧 원소의 둘째아들 원희의 안해니 옛날 업성을 깨뜨렸을 때 얻은 부인이다. 뒤에 아들 하나를 낳아 이름은 예(睿)요, 자는 원중(元仲)인데 어릴 때부터 총명해서 조비는 심히 그를 사랑했다. 그런데 뒤에 조비가 안평(安平)광종(廣宗)사람 곽영(郭永)의 딸을 맞아들여서 귀비를 삼으니 용모가 심히 아름다웠다. 그의 아버가 일찌기 “내 딸은 곧 녀중지왕(女中之王)이야.” 하고 말한 일이 있으므로 “녀왕” 이라고들 불렀었는데 조비가 맞아서 귀비를 삼은 뒤로 견부인이 총애를 잃게 되자 곽귀비는 제가 황후가 되어보려고 조비의 총애를 받는 신하 장도(張縯)와 의논했었다. 때에 조비가 병으로 누워있었는데 장도가 견부인의 궁안에서 파낸것이라고 꾸며대고 오동나무로 깎아서 만든 나무사람 하나를 갖다가 바치는데 그우에 천자의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간이 적혀있었다. 이것은 정녕 천자를 귀신에게 빌어 죽이려는것이라 조비는 대로해서 드디어 견부인에게 죽음을 내리고 곽귀비를 세워서 황후를 삼았다.

그러나 꺾씨는 아이낳이를 못했다. 그래 조예를 아들 삼아 길렀는데 조비가 비록 조예를 심히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태자를 봉하지는 않았었다. 조예의 나이 열다섯살에 이르매 무예에 숙달해서 활을 잘 쏘고 말을 잘 탔다. 이해 봄 이월에 조비가 예를 데리고 사냥을 나서서 산 언덕사이를 지나다가 사슴 두마리를 보았다. 어미와 새끼라 조비가 한살로 어미사슴을 쏘아서 쓰러뜨리고 돌아다보니 새끼사슴이 바로 조예의 말앞으로 달려간다. 조비가 “이 애, 왜 쏘지 않느냐?” 하고 큰소리를 치니 조예가 말우에서 울며 아뢰다.

“폐하께서 이미 그 어미를 죽이셨는데 어찌 차마 그 새끼를 또 죽이겠습니까?”

조비는 듣고 활을 땅에 던지면서 말한다.

“내 아이는 참으로 어질고 덕 있는 임금이로다!”

이에 그를 봉해서 평원왕(平原王)을 삼았다.

여름 오월에 조비는 감기에 걸렸는데 약을 써도 낫지 않는다. 이에 그는 중군대장군(中軍大將軍) 조진(曹真)과 진군대장군(鎭軍大將軍) 진군(陳群)과 무군대장군(撫軍大將軍) 사마의(司馬懿) 세 사람을 침궁으로 불러들이고 또 조예를 부르라 해서 조예가 이르자 조비는 그를 가리키며 조진의 무리에게 말한다.

“이제 짐의 병이 침중해서 다시 살지 못하니 이 아이가 나이 어리니 경 등 세 사람이 잘 보좌하여 짐의 마음을 저버리지 말도록 하라!”

세 사람은 모두 아뢰다.

“폐하께서는 어찌하여 이런 말씀을 내시나이까? 신 등은 힘을 다해서 폐하를 섬겨 천추만세에 이르기가 원이옵니다.”

그러나 조비는 말하는것이다.

“금년에 허창 성문이 까닭없이 재물에 무너지니 이는 상서롭지 못한 조짐이라, 그래 짐은 꼭 죽을것을 알고있노라!”

이처럼 말하고있을 때 내시가 아뢰는데 정동대장군(征東大將軍) 조휴(曹休)가 문후차로 입궐하였다 한다. 조비는 그도 불러들여서 당부한다.

“경 등은 모두 국가의 기둥된 신하들이라 만약에 능히 마음을 한가지로 하여 짐의 아들을 보좌해준다면 짐은 죽어서 또한 눈을 감으리로다.”

조비는 말을 마치자 눈물을 흘리고 세상을 떠났다. 때에 그의 나이 마흔살이요, 천자의 자리에 있기는 칠년이다. 이에 조진, 진

군, 사마의와 조휴의 무리는 한편으로 머리를 풀고 곡소리를 내고 한편으로 조예를 세워 대위 천자로 삼았다. 조예는 부친 조비의 시호를 문황제(文皇帝)라 하고 모친 견씨의 시호를 문소황후(文昭皇后)라 하며, 종요(鍾繇)를 봉해서 태부를 삼고 조진으로 대장군을 삼고 조휴로 대사마를 삼고 화흠으로 태위를 삼고 왕랑으로 사도를 삼고 진군으로 사공을 삼아 사마의로 표기대장군을 삼으며 그밖의 문무관료들에게도 각각 작위와 칭호를 내리고 나라에 대사령을 폈다. 때에 옹주(雍州), 량주(涼州) 두 고을에 지키는 사람이 결원이 나있었으므로 사마의는 상주문을 올려 제가 서량지방을 지키겠다고 자원해서 조예는 그가 원하는대로 그를 옹, 량 등 곳의 병마를 총령하게 하였다. 사마의는 조서를 받고 떠났다. 이때 정탐이 나는듯이 서천에다 이 일을 보하니 공명은 크게 놀라 말한다.

“조비가 이미 죽고 어린 아들 조예가 즉위하였다 하니 다른 무리는 모두 넘려할것이 없으나 다만 사마의가 깊이 지모와 방략이 있는터에 이제 옹주, 량주 두곳 군사를 거느리게 되었으니 만일에 훈련을 다하고난 때에는 반드시 우리 측중의 큰 화가 될것이라 먼저 군사를 일으켜서 치느니만 못하리로다.”

이때 참군 마속이 있다가 말한다.

“이제 승상께서 남방을 평정하고 돌아오셔서 군사들이 피로했으니 위로하시며 사랑해주셔야 옳을 일이지 어찌 다시 원정을 하셔서 되겠습니까? 저에게 사마의로 하여금 스스로 조예의 손에 죽게 할 계책이 하나 있사운데 승상 의향이 어떠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공명이 묻는다.

“어떤 계책이요?”

마속이 계책을 말한다.

“사마의가 비록 위국의 대신이기는 하오나 조예가 본래 의심을 품어 그를 꺼리는터이오니 가만히 사람을 락양과 업군 등지로 보내서 이 사람이 모반하려 한다고 류언을 퍼뜨리게 하시고 또 사마의가 온 나라에 고시하는 글을 지어서 널리 각처에 붙이게 하시면 조예가 의심해서 필연 이 사람을 죽이고말것입니다.”

공명은 그 말을 좇아 즉시 사람을 보내서 가만히 이 계책을 행하게 하였다. 업성 성문우에 하루는 난데없는 포고문 한장이 나붙어서 문을 지키는자가 곧 떼여다가 조예에게 갖다바쳤다.



조예가 보니 그 글의 내용은 이러하다.

표기대장군 총령웅량등처병마사 사마의는 삼가 의로써 온 나라에 포고하노라.

전일에 태조 무황제께오서 기업을 창립하시매 본래 진사왕 자건(陳思王 子建-조식을 말함)을 세워 사직(社稷)의 주인을 삼으려 하셨더니 불행히도 간사한 무리들이 온갖 참소를 다해서 오랜 세월을 황제위에 오르지 못하게 하였도다.

황손 조예로 말하면 본대 덕행도 없으면서 망녕되이 황제위에 올라있으니 이는 태조의 남기신 뜻을 저버림이라.

내 이제 하늘뜻에 응하고 백성뜻에 순종해서 날을 한하여 군사를 일으켜 만백성의 바라는바를 위로하고자 하노니, 이 고시(告示)가 이르는 날에 각기 새 임금에게 귀순하되 만일 순종하지 않는자가 있으면 마땅히 그 구족을 멸하리라. 이에 앞서 일러 깨우치노니 바라건대 다들 알라.

읽고나자 조예가 대경실색해서 급히 여러 신하에게 물으니 태위 화흠이 나서서 아뢴다.

“사마의가 상주문을 올려 웅, 량지방을 지키겠다 하온것이 바로 이를 위함이옵니다. 전에 태조 무황제께오서 일찌기 진에게 말씀하시되 ‘사마의는 매처럼 보고 이리처럼 돌아보니 가히 병권을 못 잡게 하리로다. 오래면 반드시 국가의 큰 화가 되리라.’ 하셨사온데 오늘날 반역을 꾀하는 사실이 이미 드러났사오니 속히 죽여없애옵소서.”

사도 왕랑이 또한 아뢴다.

“사마의가 도락에 깊이 밝사옵고 병법에 통달하며 본디 큰뜻을 가졌사오니 만약에 빨리 제거하지 않사오면 뒤에 반드시 화가 되오리다.”

조예가 곧 칙지를 내려서 군사를 일으켜 직접 원정하려 하는데 문득 반렬가운데로부터 대장군 조진이 뛰어나오며 아뢴다.

“불가하옵니다. 문황제께오서 신 등 몇 사람에게 탁고하셨으니 이는 사마의에게 다른 뜻이 없음을 아시기때문이온데 이번 일의 확실여부를 알지 못하며 갑자기 군사를 일으키는 바로 그 반역을 재

촉하는것일뿐이옵니다. 혹은 서촉이나 동오의 정탐이 리간을 놀아 우리 군신들로 하여금 스스로 어지럽게 하고 저희가 우리의 허한 틈을 타서 치려는것인지도 모르오니 폐하께서는 다행히 살피시옵소서.”

조예가 한마디 묻는다.

“그러나 사마의가 만약에 과연 반역을 꾀한것이면 장차 어찌하오?”

조진은 계책을 드린다.

“만일에 폐하께서 의심하시거든 한고조가 진평의 계책을 좇아서 거짓 놀러 나간체하고 운몽(云夢)에 이르러 한신을 속여서 영접하러 나오게 하고 그 자리에서 사로잡은 계책을 본받으셔서 임금님 타신 수레가 안읍에 행차하옵시면 사마의가 와서 영접하오리니 그 동정을 보셔서 바로 어가앞에서 사로잡으심이 가하오리다.”

조예는 그의 계책을 좇아서 드디어 조진에게 자기가 없는 사이에 락양에 남아 국무를 다스리게 하고 자기는 친히 어림군 십만을 거느리고서 바로 안읍으로 갔다.

사마의는 영문도 모르고서 황제로 하여금 그 위엄을 알게 하려 곧 군마를 정돈하여 갑옷 입은 군사 수만명을 령솔하고 어가를 맞으러 왔다. 이것을 보고 근신이 아뢰다.

“사마의가 과연 군사 십여만을 거느리고 와서 항거하오니 반역심을 가졌음이 적실하오이다.”

조예는 황망히 조휴에게 명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서 맞게 하였다. 사마의는 군마가 오는것을 보고 황제의 수레가 친히 이른 것이라고만 생각해서 길에 엎드려 영접하였다. 그런데 조휴가 나오며 꾸짖는다.

“중달은 선제로부터 타고를 받자왔으며 어찌하여 모반하는고!”

사마의는 대경실색해서 전신에 땀을 흘리며 그 까닭을 묻자 조휴가 앞의 일을 일러준다. 사마의는 곧 말한다.

“이는 오와 촉의 정탐이 리간을 써서 우리 군신을 서로 잔인하게 물고 뜯고 해치게 하여놓고 제가 그 허한 틈을 타서 엄습하려 하는것이니 내 마땅히 몸소 천자를 뵈옵고 사리를 분별해서 분명히 말씀을 올리겠소!”

그는 드디어 급히 군사를 뒤로 물린 다음에 조예가 타고있는 수레앞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울며 아뢰다.

“신이 선제께서 타고의 중임을 받자온터에 어찌 감히 다른 마음이 있사오리까? 이는 반드시 오와 축의 간계이오니 신은 청하옵건대 얼마간의 군사를 거느려 먼저 축을 깨뜨리고 다음에 오를 쳐서 선제와 폐하께 보답하오며 신의 진심을 밝히려 하나이다.”

조예가 마음에 의심해서 얼른 결단 못하는데 화흠이 있다가아 된다.

“병권을 맡기서서는 아니되오니 벼슬을 파하시고 향리로 돌아가게 하심이 마땅할가 하옵니다.”

조예는 그 말에 의하여 사마의의 관직을 삭탈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고 조휴에게 명하여 웅주, 량주 두곳의 군사를 총독하게 한 다음 수레를 돌려 락양으로 돌아왔다.

한편 정탐이 이 일을 탐지해다가 천중에 보하니 공명은 듣고 크게 기뻐하며 말한다.

“내 위를 치려고 마음먹은지 오래나 사마의가 웅주, 량주의 군사를 거느리고있으므로 못했는데 이제 계책이 맞아서 제가 벼슬이 떨어졌으니 내 무슨 근심이 있으랴!”

그 이튿날이다. 후주가 이른아침에 문무관료를 크게 모으매 공명이 반렬에서 나와 출사표(出師表) 한장을 바치니 그 내용은 곧 다음과 같다.

신 제갈량은 아뢰나이다. 선제께오서 창업을 미쳐 끝내지 못하신 채 중도에서 붕어하시고 이젠 천하가 셋으로 나뉘어 익주(촉나라)가 쇠약하니 진실로 나라의 존망이 위급한 때이옵니다.

그러하오나 모시는 신하가 안에서 게을리 아니하며 충성된 뜻을 가진 장수들이 밖에서 제 몸을 돌보지 않음은 대개 선제의 특별한 대우를 추모하여 이를 폐하께 보답하려 함이로소이다.

마땅히 임금께서는 신하들의 충언을 귀담아들으시어 선제의 덕을 빛내시며 뜻 있는 선비들의 의기를 넓히시고 행어나 망녕되이 스스로 경하게 생각하셔서 레를 비근(卑近)한데서 끌어 대의를 잃으심으로써 충성으로 말하는 길을 막지 마옵소서.

황궁과 승상부는 한몸이오니 선한것을 상주시며 악한것을 벌하심에 서로 다른바가 있으셔서는 아니되웁니다. 만약에 작간해서 법을 어기는자와 진실하며 선한 일을 한자가 있사옵거든 마땅히 유사(有司)에게 맡기시여 형벌과 상을 의논케 하여 폐하의 공명정대하신 정사를 밝히실것이니 결코 편벽되이 사를 두시여 안과 밖이 법이 다르게 하지 마옵소서.

시중의 곽유지(郭攸之), 비위(費禕)와 시랑인 동윤 등은 모두 선량하고 성실하며 충직하고 순후한 까닭에 선제께오서 선발하셔서 폐하께 끼치신 사람들이오니 궁안의 일은 크고 작고가 없이 모두 이 사람들에게 물으신 연후에 시행하신다면 반드시 빠진것을 채워서 널리 더하는 바가 있을줄로 신은 생각합니다. 장군 향충(向寵)은 성품과 행실이 선량하며 편벽되지 않사옵고 군사에 환히 통하고있어서 이미 선제께오서 시험해 써보시고 능하다고 칭찬하셨으므로 여러 사람이 충을 천거하여 도독을 삼은터이오니 영(營)안의 일은 크고 작고가 없이 모두 이 사람에게 물으신다면 반드시 군중이 화목하며 우열이 옳게 처리될줄로 신은 생각하나이다.

어진 신하를 가까이하며 소인을 멀리함은 바로 전한(前漢)이 왕성하게 일어난 근본되는 리유이옵고 소인을 가까이하며 어진 신하를 멀리함은 바로 후한(后漢)이 기울어지고 무너진 근본되는 리유라 선제께오서 재세(在世)하실 때 신으로 더불어 이 일을 의논하시매 매양 탄식하시며 일찌기 환제와 령제를 통한히 여기시지 않은적이 없으셨나이다. 시중(侍中), 상서(尚书), 장사(长史), 참군(参军)들은 모두 마음들이 바르고 성실하며 목숨을 바쳐 절개를 지키는 신하들이오니 바라옵건대 폐하께서 친근히 아시고 신임해 쓰시면 한나라황실의 융성을 가히 날을 끝아서 기다릴수 있소오리다.

신이 미천한 몸으로서 몸소 남양에 발 갈며 어지러운 세상에 오직 목숨을 온전히 할뿐이옵고 제후에게 명성 높아짐을 구하지 않았사온데 선제께오서 신을 천하고 더러이 여기지 않으시고 스스로 몸을 굽히시며 신의 초려를 세번 돌아보시고 세상일을 물으시니 이로 말미암아 감격하와 드디어 선제께 몸을 바쳐 힘을 다하기로 하였사옵니다. 뒤에 형세가 뒤집히매 싸움에 패하여 어지러울 때에 임무를 맡고 위태롭고 어려운 가운데 명을 받들었으니 그뒤로 어느덧 이십일년이 되나이다.

선제께오서 신의 근신함을 아시므로 봉하심에 림하여 신에게 대사를 맡기시니 명을 받자온 이래 주야로 근심하며 혹시나 부탁하신바를

다하지 못하여 선제의 총명을 손상하는 일이나 있지 않을까 저어하와 오월에 로수를 건너서 깊이 불모의 땅으로 들어갔던것이옵니다.

이제 남방이 이미 평정되었고 갑병이 이미 족하오매 마땅히 삼군을 거느리고 북벌하와 중원을 평정하되 있는 힘을 다 바쳐서 간악하고 음흉한 무리를 멸하여 한나라황실을 다시 일으키고 옛 서울로 돌아가기를 기약하오니 이것이 신의 선제께 보답하며 폐하께 충성하는 직분이옵고 손해와 리익을 짐작하며 충성스런 말씀을 올리는데 이르러는 곧 유지(攸之), 위(祗), 윤(允)의 할 일이옵니다. 바라옵건대 폐하께서는 신에게 도적을 치며 한나라황실을 다시 일으키는 공을 부탁하시되 공을 이루지 못하거든 신의 죄를 다스리시어 선제의 령전에 고하시고 만약에 한나라황실을 다시 일으키는 말씀이 없삽거든 유지, 위, 윤 등의 허물을 책망하시어 그 게으른 죄를 드러내시고 폐하께서도 또한 스스로 도모하시되 착한 길을 물으시고 충언을 살피들으시며 깊이 선제의 유언을 좇으소서.

신이 폐하의 은혜를 받자옵고 감격함을 이기지 못하와 이제 멀리 떠나려 하매 상주에 림하여 눈물이 앞을 가리워 아뢴바를 알지 못하나이다.

후주는 상주문을 보고나자 말한다.

“승상어른께서 남정하여 먼 길에 온갖 간난을 겪으시고 바야흐로 돌아오셔서 좌석이 미처 편안치 않으신터에 이제 또 북벌을 하려 하시니 너무 신심을 수고로이 하실가 두렵습니다.”

공명은 아뢴다.

“신이 선제로부터 타고를 받아온 뒤 주야로 한시라 게으른적이 없사옵거니와 이제 남방이 이미 평정되어 국내에 근심이 없사운데 이때를 타서 도적을 치고 중원을 회복하지 않고 다시 어느날을 기다리겠나이까?”

이때 홀연 반렬안으로부터 태사 초주가 나와서 말한다.

“신이 밤에 하늘을 보매 북방에 왕성한 기운이 바야흐로 성해서 별들이 감절이나 밝으니 아직 도모하지 못하리로소이다.”

그리고 공명을 돌아보며 말한다.

“승상께서 천문에 깊이 밝으신터에 어찌하여 억지로 하시려 하시나이까?”